Eugene's FICC Update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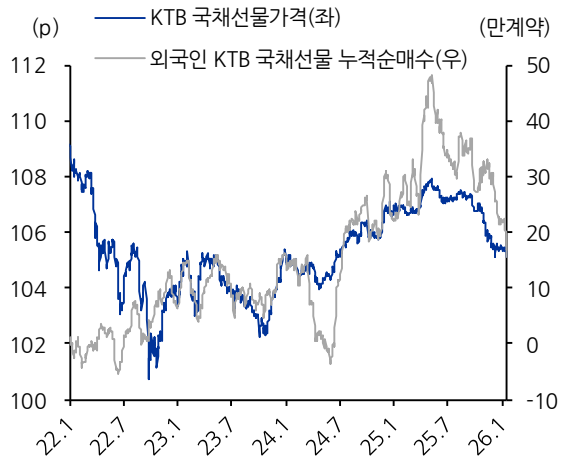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RA 이준영_ 02)368-6136_ lee.jy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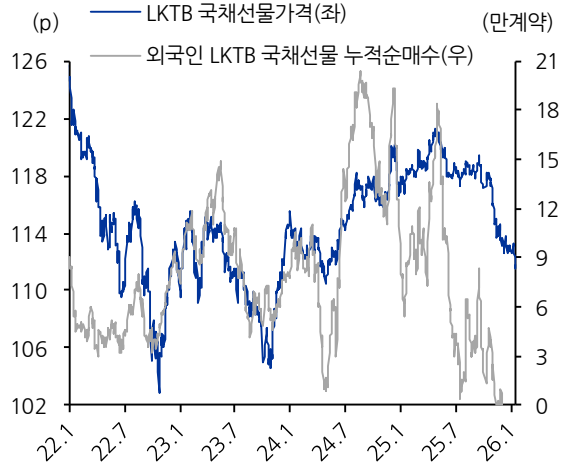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틱)

		1/16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080%	-1.0	13.8	12.7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488%	-0.5	10.2	10.3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40.8	40.3	44.4	43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09	0.0	-27.0	-35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1.80	21.0	-94.0	-112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589%	2.3	5.6	11.7
	미국채 10년물	4.225%	5.3	5.9	5.7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63.6	60.6	63.3	69.6
	독일국채 10년물	2.833%	1.8	-2.9	-2.2
	호주국채 10년물	4.695%	2.7	2.4	-5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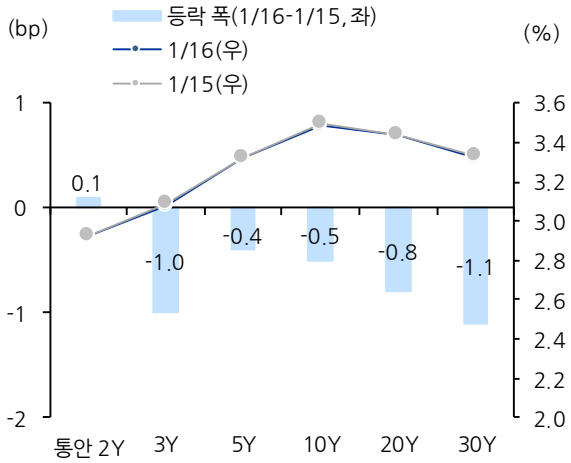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, 소폭 하락 마감.
- 전일 매파적 금통위에 의한 금리 급등이 소폭 되돌리는 모습. 오전 중에는 전일 여파가 남아 금리 상승세 이어갔지만, 오후 들어 점차 저가매수 유입으로 하락 전환.
- 환율, 다시 상승했지만 전일 환율 발 금통위 인하 기조 종결 등으로 선반영되면서 금리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음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
-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앞두고 기존 후보 중 가장 완화적인 성향이 강했던 케빈 해싯 NEC 위원장의 지명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인식에 금리 소폭 상승. 대신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지명 가능성이 대폭 반영. 케빈 워시, 이전 연준 정책에서 QE를 반대했던 인물로 케빈 해싯보다는 매파적인 인물로 분류.
- 연휴 앞두고 BEI 스프레드 상승도 영향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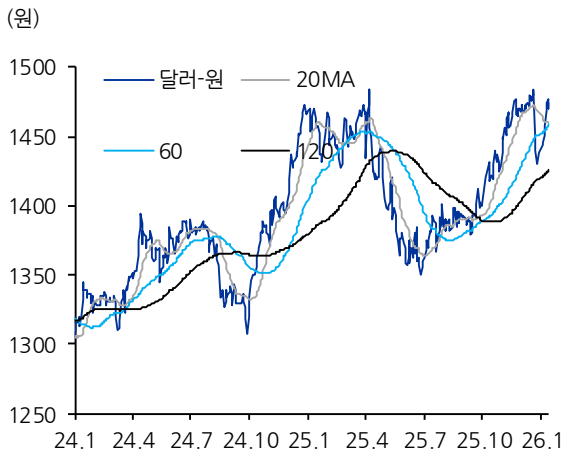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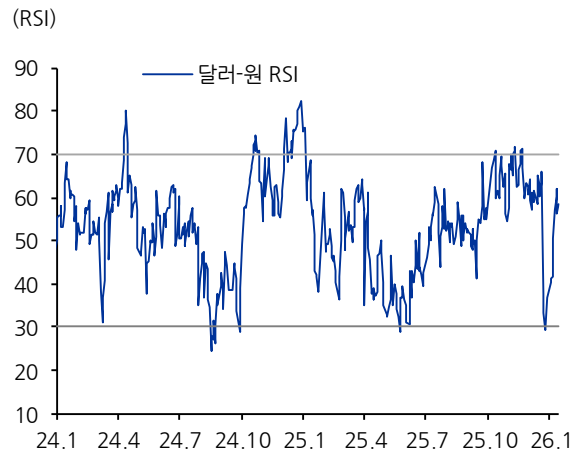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$)

		1/16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73.60	0.3%	1.1%	2.4%
	달러지수	99.37	0.0%	0.2%	1.1%
	달러/유로	1.160	0.0%	-0.3%	-1.2%
	위안/달러(역외)	6.97	0.0%	-0.1%	-0.2%
	엔/달러	158.08	-0.4%	0.1%	0.9%
	달러/파운드	1.338	0.0%	-0.2%	-0.6%
	헤알/달러	5.37	0.0%	0.1%	-2.6%
상품	WTI 근월물($)	59.44	0.4%	0.5%	3.5%
	금 현물($)	4,582.95	-0.5%	1.7%	6.1%
	비트코인($)	95,665.00	0.3%	5.8%	8.9%
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3.90원 상승한 1,473.6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474.50원 마감.
- 달러-원은 11거래일만에 하락 전환 마감했으나 다시 하루 만에 상승 흐름을 재개. 달러 인덱스 약세와 달러-엔 하락,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(+4천억원)에도 불구하고 수입 결제 및 해외투자 환전 수요가 우위를 보이며 환율을 지지.
-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원화 약세 언급과 당국의 추가 대응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남아 상승폭은 제한됨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했으나, 연준 의장 구도 변화에 따른 금리 기대 조정으로 하락 폭을 축소하며 마감.
-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케빈 해싯 NEC 위원장의 지명 가능성이 낮아짐. 상대적으로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의 의장 지명 가능성이 높아짐.
- 미국 12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+0.4% 증가하며 시장 예상(+0.1%)을 상회했고, 제조업 생산도 +0.2% 늘어나 실물 경기의 견조함을 재확인.
- 엔화는 일본 외환당국의 반복적인 구두 개입 경계 속에 장중 157엔 후반까지 하락.
- 금일 미국 휴장(마틴루터킹 데이), 중국 주요 실물경제 지표 발표 예정, 세계경제포럼(WEF)은 23일까지 개최.